

10월3일(월)/딤후4:9~18

제목: 내 곁에 서신 주님

바울에게 갑자기 고독이 찾아왔다. 이유가 무엇인가? 갑자기 상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마와 그레스게와 디도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바울을 떠났다(10절). 그중에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해꼬지를 많이 하고 떠났다(14절). 게다가 곧 재판 시작될 것인데 그때 바울을 변호해줄 사람들이 모두다 의리를 저버리고 떠난 상태이다(16절). 바울 곁에는 지금 ‘누가’ 만 있다(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는 말 속에 바울의 고독이 묻어난다. 고독에 빠진 바울은 디모데에게 빨리 와달라고 부탁하였다(9절). 감옥 안에서 추위와 영적 갈급함을 느낀 바울은 특별히 두툼한 외투와 가죽 종이에 쓴 책을 부탁하였다(13절). 그는 몸도 춥고 마음도 추웠다. 술한 믿음의 전투에서 승리한 백전노장인 바울도 인간인 지라 고독에 빠졌다. 이것이 인간이다. 그러나 그는 한가지 남달랐다. 그는 고독 속에서도 자기에게 늘 이길 힘을 주시는 ‘내 곁에 서신 주님’을 부르고 있다(17절). 그렇다. 우리에게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고, 형제자매도 있고, 친구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언젠가는 다 우리 곁을 떠날 자들이다. 그러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은 내 곁에 서신 주님이다.

10월4일(화)/딤후4:19~21

제목: 반려자입니까? 방관자입니까?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먼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인사하였다(19절). 이들은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하고 바울을 위하여 온갖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이다(롬16:4~5). 오네시보로에게 보내는 인사도 있다(19절). 이 사람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늘 찾아와서 격려하였던 사람이다(딤후1:16). 에라스도에게도 인사하였는데 이 사람은 바울이 자기의 사자로 마케도냐에 전에 한번 파송한 적이 있었다(20절, 행18:22). 드로비모에 대한 인사도 있는데 이 사람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될 당시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20절, 행20장). 끝으로 으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라는 이름도 언급되었다(21절). 바울은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겨울이 되기 전에 오라고 부탁하였다(21절). 추워지기 전에 겉옷 챙기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이다(13절). 또한 겨울이 되면 로마로 출항하는 배들이 아드리아 해안을 향해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디모데가 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바울의 많은 반려자들의 이름이 나온다. 이 반려자들이 없었다면 바울은 결코 여러 일을 잘 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의 반려자로 살고 있는가? 방관자로 살고 있는가?

10월5일(수)/딤후4:22

제목: 하나님이 혜택 주는 사람

바울의 편지의 마지막 문구는 항상 축원이다.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22절). 바울은 하나님께서 디모데와 함께 계시주시면 그는 항상 은혜받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 개인 뿐 아니라 ‘너희’에게도 그러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너희’는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을 가리킨다.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비는 축원은 단순히 디모데 개인 뿐 아니라 에베소 교회 전체 교인들에게 전하는 내용이었다. 바울이 축원하는 이 마지막 문장은 바울의 모든 편지 끝 부분에 들어가는 형식적인 것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처한 위기가 단순히 사람의 형식적인 권면만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개입해야 해결 될 일이었기 때문이다. 디모데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혜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 마지막 축원은 디모데의 피부에 와 닿는 말이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혜택을 주시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와함께 계시도록 내가 만들어야 한다.

10월6일(목)/딤후1:1~4

제목: 망치는 사람, 해결하는 사람

바울은 디도에게 쓰는 편지 서두에 자기가 사도로서 행하는 역할과 선포하는 메시지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고 또 영생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1~2절).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임무를 때가 되었을 때 자기에게 맡기셨다고 했다(3절). 디도가 누구인가? 바울은 디도를 자기의 ‘참 아들’이라고 불렀다(4절).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남다른 애정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울을 혐오하고 있을 때 디도는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동행했다(갈2:10). 고린도 교회가 싸움으로 인해 폭발직전에 있을 때, 바울의 가장 엄중한 편지를 들고 그곳을 찾은 사람도 디도였다(고후8:16).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모금을 할 때도 바울은 디도를 보냈다(고후8:6,10). 디도는 강한 정신력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 곤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지도자가 믿고 보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곤란한 사정을 더 악화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상황을 희망적인 분위기로 바꾸는 사람이 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만 등장했다하면 분위기가 자주 망쳐지는 편인가? 아니면 소동이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해결사로 자주 불러 주는 편인가?

10월7일(금)/딤후1:5~9

제목: 선거를 잘 합시다.

바울이 디도를 그레테에 남겨둔 이유는 그 곳에서 남은 일들을 잘 정리하고, 도시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5절). 그레테는 많은 도시들로 구성된 큰 섬이다.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이 섬을 이루고 있는 도시의 교회마다 조직을 세우고 지도자를 임명하여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바울의 특징 중 하나는 교회를 설립함과 동시에 항상 장로들을 임명하는 것이었다(행14:23). 바울은 디도에게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를 장로와 감독으로 세울 것을 명하였다. 장로는 흠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 자녀도 믿는 자이며, 방탕하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듣지 않는 자여야 한다(6절). 감독은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으며, 쉽게 화내지 않으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폭행하지 않으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않으며, 손님들을 잘 대접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반대자를 반박할 수 있는 말씀의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7~9절).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의 자격을 생생한 어휘를 사용해서 설명하였다. 요즘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이권이나 이해관계 중심으로 나가는 한국교회는 이런 본문들을 다시 주목해야 한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